

제2기 **미주문학**

200.7
겨울호

미주한국문인협회

Korean Literature of America

연재 강좌

10 고 원 / 현대 문예사조 개관 3 — 상징주의

시

- | | |
|----------------------------------|---------------------------|
| 18 강성재 아무도 살지 않는 집 | 57 안선헌 가을 산에는 |
| 20 강학희 배꼽 | 59 오연희 다이어리 |
| 22 강화식 끝나지 않은 연극 | 61 오정방 오레곤 연가(戀歌) |
| 24 고영준 나를 보고 운다 | 63 윤석훈 손바닥 |
| 25 고현혜 나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 | 65 윤종길 가족 허리띠 |
| 27 곽상희 그 땐 시인이란 이름이 | 67 윤희정 그리움 |
| 29 김내수 그림자 그림 | 69 이기윤 시내 |
| 31 김모수 누가 누구를 구경하느냐 | 70 이용애 별이 빛난 밤 |
| 33 김복숙 갈등 | 72 이윤홍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돌멩이 |
| 35 김성수 밤이 아름다운 이유 | 74 장선영 연말 |
| 37 김신웅 가을 까치 | 75 장태숙 우회(迂廻) |
| 38 김영교 겨울나무 소고 | 77 정국희 소포 |
| 40 김희주 진짜 | 79 정용진 허수아비 |
| 42 문인귀 분명한 것 | 81 조영철 눈 |
| 43 박경호 포춘쿠키
(Fortune cookies) | 82 조주현 함께 가는 길 |
| 45 변재무 춤을 춘다 | 84 차신재 장마 |
| 47 석정희 섬에 홀로 남게 되는 2 | 86 채수옥 적막 |
| 49 송정룡 천륜(天倫) | 88 최석봉 가을이여 |
| 51 신 소피아 절벽 위의 소나무 | 89 최익철 분재 |
| 53 신 헬렌 마음의 병 | 90 추은진 예감 |
| 55 안경라 가을편지 | 91 홍인숙(그레이스) 저녁이 내리는 바다 |

부록

284 미주한국문인협회 25년 약사

298 미주 한국문인 주소록



권두언 / 늦깎이 문인의 출판기념회	김동찬	6
계간 <미주문학> 신인상 작품모집		표2
계간 <미주문학> 구독 안내		4
	문협소식	279
	편집 후기 / 판권	322
표지 사진 / 김영교(시인, 사진작가)		표지

수필

093 강치범 배심원 불루
098 김우영 여보, 눈물 가지고 가야 해!
104 김태영 미국 촌사람 금강산에 가다
112 박봉진 아카시아
117 배희경 얼굴이 있었다
121 성영라 따뜻한 한끼의 밥상
124 이상욱 아리조나주 지름길 89번
131 정순옥 갈퀴나무야
135 지희선 서른 세 개의 추모석과 서른 두 개의 하얀 풍선
140 최미자 타오르는 불꽃(Flaring Flames)

단 편 소 설	145 이동휘	데스 밸리의 꽃
	165 임영록	카스트라토
	185 한만선	루썬언 밸리

아
와
210 동화 / 박심성 야구 클럽
216 동시 / 이송희 할머니 주머니
217 2007 미주문학신인상 동시 / 이선자 까마중

연재 평론/미주 한인 소설 연구(11)

221 박영호 1980년대의 미주 한인 국문 소설

245 시 부문 배미순 종이컵에 쓴 시 외4편

계 간 평	259	시	정호승	시는 내 삶의 구체에서 피는 꽃
	265	소설	황충상	소설은 소설을 기대한다
	270	수필	하길남	수필과 시대정신

계간 <미주문학> 구독 안내

계간 <미주문학>은 우리의 자산
모두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

<미주문학>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요, 발표의 장입니다. <미주문학>이 1년 네 번 발행되는 계간지로 정착되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문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 문학인들의 발표 지면이 늘어난 것을 뜻하며, 곧 우리 모두의 창작 의욕을 돋우고, 전체 문학계의 활성화로 직결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미주 문학인들을 위한 일입니다.

아울러 계간 <미주문학>이 회원들끼리만, 미주 문학인들끼리만 나뉘 보는 회원지, 또는 동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문학 애호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반 판매를 위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 편집 제작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계간 <미주문학>의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위의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정기구독을 권고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네 번(호)의, 또는 여덟 번(호)의 책값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계간 <미주문학>을 위해 찬조한다고 생각합시다.

계간 <미주문학>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모두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문학인들에게 계간 <미주문학>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합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찬조자 및 정기구독자 명단은 매달 문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